



2면

안전사고 예방은 지나칠 정도로 철저히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2년 9월 30일 금요일 (음 9월 5일) 제3110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에너지복지 기본계획 수립

전북도, 지자체 최초로... 3대 추진방향·17개 과제 발굴

지자체 최초로 전북도에서 에너지 복지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전북도는 에너지복지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보편적 에너지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1차 전라북도 에너지복지 기본계획(2022~2026)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북도 에너지 미공급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지난해 6월 제정)에 따른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다.

그간 전북도는 용역 수행기관인 전북연구원 주관으로 주민(읍면동 이상 927명, 복지활동가 69명),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복지단체,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의 회의, 간담회, 설문조사,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북도는 보다 따뜻한 전북 에너지복지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3대 추진방향과 17개 과제를 발굴했다.

먼저 에너지복지 정책기반 강화를 위해 관련 조례의 개정과 중간지원 조직의 확충 등이 포함됐다. 특히 에너지 미공급 지역으로 국한된 관련 조례 명을 에너지복지로 개정해 보다 포괄적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에너지 공급 및 전환 가속을 위해 농어촌 중심의 에너지 미공급지역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읍면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과 농어촌형 수소시범도시 조성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전기 100% 및 도시가스(준도시가스) 80% 이상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 효율 및 안전 향상을 위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손실을 줄이고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계층 대상 가스 및 전기안전장치 보급사업, 가스 및 전기시설 안전점검 등도 발굴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흐름에 맞춰 안전관리의 디지털화도 선도한다는 구상이다.

전북도는 발굴된 과제 중 신규 사업은 시군 수요조사와 예산편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전대식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전북도는 타 지자체에 비해 한발 앞서 에너지 소외계층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계획도 수립했다"며, "앞으로도 에너지복지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보편적 에너지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당부했다. /김경수 기자

전주시정연구원 설립 가시화

시의회 본회의서 조례안 통과

싱크탱크·자료은행 등 역할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출범

전주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해나갈 전주시정연구원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출범한다.

전주시는 전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29일 제395회 전주시의회 장례회에서 통과돼 시정 발전을 이끄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시정연구원의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시정연구원 설립은 천년미래를 여는 전주의 큰 꿈을 만들고 실현시키기 위한 우범기 전주시장의 민생기 핵심 공약사업으로 전국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시정연구원 설립 근거를 담은 조례를 제정한 것은 경기도 화성시에 이어 전주시가 두 번째이다.

시는 시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오는 10월 중 전주시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후 시는 11월 중 이사회를 구성해

정관 등을 제정하고, 행정안전부에 설립허가를 신청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전주시정연구원을 출범시킨다는 구상이다.

시정연구원은 향후 전주 발전에 대한 중·장기 계획수립과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 △국가예산사업 발굴 △중장부처 공모사업 및 도비 지원 사업과제 공모와 기획 △수행 및 중점 전략 과제에 대한 연구 수요 조사 △예산 집행의 효율성·적절성에 대한 분석 연구 등도 수행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설립될 전주시정연구원이 전주발전을 위한 싱크탱크이자 문제해결은행, 자료은행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우범기 시장은 "전주가 더 큰 꿈을 꾸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전주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밑그림을 그릴 연구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련 절차 이행 등을 통해 시정연구원 설립을 차질없이 준비해 정책효과를 높이고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김제지평선축제 '황파르'

29일 김제시인의 지속된 노력의 결실인 제24회 김제지평선축제의 장대한 막이 올랐다.

이날 오전 벽골제 장생거 앞에서는 하늘과 땅에 예를 갖추는 천지제를 서두로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축제의 밤 개막식 행사에서는 가수 현숙 이스마한 무용단 더이더 국악단의 식전 공연이 있고 난 뒤 정성주 김제시장 이원택 국회의원, 김명자 김제시의회 의장, 이재희 지평선축제위원장의 개막선언과 함께 대한민국의 쌀을 한곳에 모으는 퍼포먼스, 탐미식이 치러졌다.

이후 아간 대표 프로그램인 지평선 드론쇼가 연출되어 가을 하늘에 별빛 감동을 남기고 개막일의 대미를 장식한 전주MBC 지평선 축하공연에 남진, 박현빈, 설하은, 혜진이 등 유명 가수의 초청공연이 펼쳐져 벽골제를 오가는 수많은 이의 가슴에 뜨거운 감동을 남겼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찾아주시는 모든 분과 다시 지평선에서 축제의 감동을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올해 축제를 통해 김제의 참모습을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전북 선수단 결단식이 열린 29일 전북체육회관 야외광장에서 김관영 도지사 서거석 교육감, 전강선 전북체육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화이팅을 외치며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전국체전 전북 선수단 결단식

"우리들의 힘을 보여주자"

선수·임원 등 총 1753명 출전... 49개 종목서 경쟁

내달 7~13일 울산시 일원서 3년만에 정상 개최

사전 경기로 열린 유도서 金 1·銀 4·銅 3개 획득

"전북 체육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전북체육회 회장 정강선은 29일 체육회관 1층 야외광장에서 '전국체전 출전 전북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단식에는 김관영 도지사과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서거석 교육감 등 도내 기관장을 비롯해 도내 언론사 대표, 체육회 임원, 경기단체장, 선수단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3년만에 정상 개최되는 이번 전국체전에서 전북 체육의 힘을 보여주자"고 한목소리로 선수

단을 격려했다. 이날 결단식은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출전 선수단 소개, 단기수여, 선수지도자 대표 선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10월 7~13일까지 펼쳐지는 이번 전국체전에서는 전국 시·도를 대표한 선수들이 49개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이번 전국체전에 전북 선수단은 선수와 임원 등 총 1,753명이 출전한다.

정강선 회장은 "강도높은 하계 강화를 등 그동안 전북 선수단은

경기력 향상을 위해 무수히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으며 "경기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 선수단은 전북 체육의 자랑이자 영광스런 얼굴들이라며 "체육을 통해 전북도민들에게 환희와 기쁨을 선사하자"고 덧붙였다.

김관영 지사는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라고, 개최식이 열리는 날 울산을 찾아 여러분들을 응원하겠다"며 "과거에 비해 전북 체육이 참채 돼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만큼 전북체육회와 전북 체육의 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체전 사전 경기로 열린 유도 종목에서 전북 선수단은 금 1, 은 4, 동 3 등 총 8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장은성 기자·김경수 기자

손 씻기·실내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해주세요.

10월 3일까지 신문 쉽니다.

대한민국 명예대표 문화관광축제
gimje.go.kr/festival

2022. 9.29.(목) ~ 10.3.(월)
전북 김제시 일원(벽골제 중심)

김제 지평선 축제 24th